

## 국내최초 여성 국제 컨/샤시 검사 자격사 탄생

### 국내최초 여성 국제 컨/샤시 검사 자격사 탄생 한진해운 정선희대리 IICL 주관시험 자격증 획득

한진해운(대표 최원표)의 여직원이 컨테이너와 샤시(트레일러) 두 부문에서 국제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장비관리팀 정선희대리(28)는 지난해 컨테이너 국제 검사자격사에 이어 올해 초 샤시 자격시험도 합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컨테이너와 샤시 동시 검사 자격사가 되었다.

국제 컨테이너/샤시 검사 자격증은 국제컨테이너임대사협회 (IIC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ntainer Lessors)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제도로써 이를 획득한 자는 장비보수의 적합성 판별 및 화물 안전 수송을 위한 장비이상 유무 확인, 검사 및 까다로운 미국도로 규정에 적합한 샤시사용 판별 등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시험 첫해인 지난 84년에 전병진(全秉眞) 장비관리팀장이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부문 검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래 지금까지 2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세계적인 장비전문가를 확보한 선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여성 최초의 컨테이너/샤시 동시 검사 자격사의 영광을 안은정 대리는 "전 세계 각 지역에 산재한 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보다 전문화된 지식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이번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목표를 세워 노력한 결과가 좋아 직장생활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기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회사 장비 관리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36만대의 컨테이너와 2만 7천대의 샤시 등 대규모 장비를 운영중인 한진해운은 9.11 테러 이후 장비 안전성, 관리 강화 및 미국 도로 규정 개정에 따른 샤시 검사 기준 강화 등 장비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담당자의 중국지역의 컨테이너 제조 공장 견학, Carrier사의 냉동기 교육 참가, 유럽 인터모달(Intermodal) 박람회 참석, 국제 컨테이너 사양 표준화 협의회 참석 및 사내 Technical Working Group 활성화 등을 통해 장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04-02-28 취재부]

[기사목록](#) [프린트](#) [뒤로](#) [가+](#) 크게보기 [가-](#) 작게보기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한국해운신문 주식회사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해운신문(주)**

대한민국 제1의 해운매체 | 100-230 서울 중구 수표동 56-9 대동B/D 303 TEL 02)2285-5571~4  
Copyright 1996-2005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